그대는 자비보살

이춘성 제15대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장



이춘성 제15대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장은 대한불교신문사 기자를 시작으로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사무총장,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장을 맡아 지역 사회복지의 실무를 이끌었다. 부산광역시사회복지관협회장, 부산재가노인복지협회장,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시민참여위원장, 부산복지개발원 이사 등을 지내며 폭넓은 경험과 행정 식견을 쌓았다. 현재 부산 문수사가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문수복지재단 이사를 비롯해 부산광역시인권위원,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이사, 심청이문수노인복지센터장으로 활동하며 정책과 현장을 잇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부산광역시장 표창 등을 수상했다.

“사회복지는 하심으로 복 짓는 수행”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네가 하심(下心)하며 잘할 수 있겠느냐”

이 한마디가 삶을 관통하는 화두가 됐다. 조계종 전 포교원장 혜총 대종사가 제자 이춘성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장에게 던진 물음이다.

1999년, 부산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스승은 단호했다.

“평생 철저히 자신을 낮추며 진정으로 잘해낼 자신이 있다면 위탁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시작조차 하지 않겠다.”

제자는 “잘해 보겠습니다”라고 답했고, 스승은 그 대답을 믿고 중책을 맡겼다. 그로부터 30여 년, 제자는 소외된 이웃들을 부처님처럼 모시며 부산 불교 복지의 든든한 이정표를 세웠다. 그는 최근 제15대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장으로 취임하며 부산 사회복지의 방향을 설계하는 자리에 섰다. 그러나 그의 출발점은 언제나 같다. ‘하심’이다.

스승의 가르침 “세상에서 복 지어라”

스무 살 무렵, 방황하던 청년 이춘성은 부산 감로사에서 혜총 스님을 처음 만났다. 아버지처럼 따뜻하고 자애로운 스승은 그의 마음 깊이 자리 잡았다. 군 복무와 대학 시절에도 감로사에 대한 그리움을 떨치지 못했다. 1985년경, 출가를 결심하고 감로사로 들어가 3년여간 아침저녁으로 지극한 예불을 올리며 행자 생활을 했다.

하지만 뜻밖의 인연을 만나 결혼하면서 출가의 뜻을 접게 됐을 때, 스승은 큰 동량(棟梁)을 잃었다는 아쉬움에 크게 서운해했다. 그렇지만 깊은 인연의 끈은 다시 이어졌다. 스님은 그를 불렀다.

“금생에는 복을 많이 지어야 한다. 복지 현장에서 중생을 구제하되, 철저하게 하심하지 않으면 결코 진정으로 복 짓는 일이 될 수 없다.”

스승은 제자의 복밭[福田]을 관리하듯 재차 당부했다. “하심해라, 일희일비(一喜一悲) 하지 마라, 시시비비(是是非非) 가리지 마라.”

척박한 비탈길, 자비 도량으로

부처님과 은사 스님, 그리고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그는 가진 역량과 열정을 복지 현장에 쏟아부었다.

용호동 일대는 한국전쟁 피난민과 도심 철거민들이 산비탈로 밀려와 정착했던 곳으로, 부산의 대표적인 복지 취약 지구였다. 가파른 비탈길을 따라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영세민과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대거 밀집해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고단한 삶의 현장이었다. 밀려드는 복지 수요에 비해 예산과 지원은 턱없이 부족했고 감당하기 벅찬 상황이 매일같이 펼쳐졌다.

그는 책상 대신 골목을 택했다. 가파르고 후미진 골목골목을 두 발로 누비며 주민들이 삶을 직접 마주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자, 단기적인 지원만으로는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끌어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방적인 서비스 공급은 오히려 주민의 자생력을 약화시킨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그는 복지의 방향을 바꿨다. 소외된 이웃을 복지의 일방적 수혜자가 아닌 지역사회의 당당한 ‘주체’이자 한 분의 부처님으로 모시는 자비행이다.

주민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인 그의 진정성 있는 헌신은 곧 성과로 이어졌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행정 지침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던 관행에서 벗어나,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스스로 마을을 가꾸는 ‘주민 주도형 마을공동체’ 모델을 선도적으로 구축했다.

‘주민 주도형 마을공동체’ 구축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어울림 효 한마당’을 개최해 세대 간 화합을 이끌었고, 마음동행(노인맞춤돌봄)과 내일리스타트(경력단절여성 지원) 등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지역사회에 안착시켰다. 솔선수범해 ‘사회복지사 1호 나눔리더’에 가입하며 척박한 현장에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과 부산광역시장 표창 등을 수여하며,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자타공인 전국 최고 수준의 복지관으로 우뚝 섰다. 척박했던 산동네는 어느새 희망이 샘솟는 자립의 공간으로 탈바꿈했고, 그와 함께 골목을 누비며 땀 흘린 직원들 역시 부산 불교 복지의 ‘최고 에이스’로 성장했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증명해 낸 이 빛나는 성과와 리더십은 그가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장이라는 더 큰 원력을 세우고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

특히 복지계에 신선한 울림을 준 것은 그의 ‘아름다운 물러남’이었다. 그는 보장된 정년을 고수하지 않고 후배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일찍이 관장직을 내려놨다. 후배 세대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미래 복지를 고민한 결과다. 그는 복지 현장이 끊임없이 젊어지고 역동해야 한다고 믿는다. 후배들에게 성장의 기회를 열어주는 선배가 되기 위해 그는 수년 전부터 물러남을 준비해 왔다.

부산 복지의 새 지평 열다

330만 부산 시민의 복지 안전망을 총괄하는 중책을 맡은 이 회장은, 그간 보여준 ‘혁신의 DNA’를 바탕으로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의 대대적인 체질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취임

혜총 스님 ‘하심’ 가르침, 30년 원력의 뿌리

용호동 산비탈 누비며 주민 주도 모델 구축

“이웃을 일방적 수혜 대상 아닌 부처님으로”

‘아름다운 물러남’ 택해 후배 성장 기회 열어

“10대 중점 사업으로 부산형 K-복지 세계화”

식에서 화환 대신 쌀을 기탁받아 취약계층에 회향하며 자비 나눔의 모범을 보인 그는, 협의회의 정체성과 위상을 새롭게 확립하겠다고 선언했다.

“협의회는 단순히 일선 기관들의 민원을 취합해 관에 전달하는 하청 구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축적된 데이터와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와 의회에 선제적으로 정책을 제안하는 ‘당당한 정책 파트너’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는 ‘부산 시민에게는 든든함을, 사회복지 현장에는 탄탄함을, 우리의 미래는 당당하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회장 직속 기구인 ‘미래혁신위원회’를 신설해 기동력을 끌어올렸다. 또 올해를 ‘복지 기반 새 틀 구축의 해’로 삼아, 시민과 현장 전문가가 직접 현안 의제를 논의하는 ‘100인 복지 커넥트(타운미팅)’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파편화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플랫폼 구축이 핵심이다.

그의 원력은 부산 복지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10대 중점 사업으로 구체화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현대 사회복지의 태동지였던 부산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부산 복지 100년사 아카이빙 및 성지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부산 복지의 정체성을 굳건히 다지는 한편, 개발도상국에 우수한 복지 실천 기술을 전수하는 ‘부산형 K-복지 세계화’를 추진해 국제적 위상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명장’ 제도와 ‘의정 대상’ 신설 등 현장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을 예우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나아가 지역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사회공헌(ESG)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컨설팅과 매칭을 제공함으로써, 복지의 외연을 민간 영역까지 든든하게 확장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심을 수행 삼아 최선 다했습니다”

이 회장의 복지 철학 뿌리에는 어린 시절, 매일 아침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올리던 할머니의 뒷모습이 자리하고 있다. 그때 싹튼 불교적 감수성은 그가 30년 넘게 복지 현장을 지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리고 은사 혜총 스님의 가르침과 수많은 선지식과의 인연이 삶을 이끌었다. 현재 문수복지재단 이사장 지원 스님과는 대한불교신문 기자 시절부터 신뢰를 쌓아왔다. 범어사 방장 정여 대종사 역시 그가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잡아준 스승이다. 이 회장은 “오늘의 저를 있게 한 것은 정관·정년·범산·수불·지현 스님 등 수많은 스님들의 원력 덕분”이라며 감사를 전했다.

은사 혜총 스님이 내린 ‘하심’이라는 화두를 가슴에 품고, 부처님의 자비 사상을 ‘사회복지’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꽃피워 낸 이춘성 회장. 내생의 출가를 굳게 기약하며, 금생의 치열한 복지 현장을 도량 삼아 묵묵히 맑은 복을 지어가고 있다.

인터뷰 말미, 다시 같은 질문을 던졌다. “지금 스승이 묻는다면 무엇이라 답하시겠습니까.”

그는 잠시 웃으며 말했다.

“스님, 하심을 수행으로 삼아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민을 부처님으로 모시며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봉암사 기도를 위해 산에 오르던 중, 은사 혜총 스님과 휴식을 취하고 있는 이춘성 회장.



2023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시민참여위원회 활동 당시 감사패를 수여한 모습.



2019년 5월 열린 ‘제14회 용호장승축제’에서 기념행사를 진행하는 이춘성 당시 용호종합사회복지관장.



어르신들을 위한 급식 봉사에서 직접 배식에 나선 이춘성 회장.